

돈과 사역

돈과 사역은 매우 민감한 관계에 있습니다. 몇 가지 논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주 되심 Lordship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사역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Mammon 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마 6:24).” 물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해선 결코 안 됩니다(마 6:25). 허나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이윤 창출이 되어선 안 됩니다.

비 상업화 Not Merchandising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품으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고후 2:17).” 우리는 일하는 데에 있어 책임감 있는 전문 사업인처럼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판매용으로 보아선 안 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행 8:20).”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헌금이 들어오게 하는 술수로 교묘하게 조작하는 능력은 뿌리부터 악한 것입니다(딤후 6:10).

드리는 믿음 Faith to Give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분을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드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아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자리엔 5,000 명의 남자들 외에도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마 14:16).”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신분을 바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빈곤한 needy 사람에서 필요 needs 를 채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 안에 초자연적인 채우심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리라는 믿음을 제한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 간사들과 팀원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드리고 베푸는 믿음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주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5,000 명을 먹인 후에 주님께서서는 부스러기를 모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각각의 제자들에게 한 광주리씩 돌아갈 만한 분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나누는 데에는 퍼붓듯이 하고 소비하는 데에는 알뜰한 것입니다.

납세

정부에 내는 세금은 매우 비싸며, 때로는 하나님의 돈을 낭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금을 내라고 명하십니다(롬 13:6). 납세에 있어 누군가가 엄청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수입에 맞게 적용되는 비율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아께서는 베드로에게 물고기의 입에서 돈을 꺼내 성전의 종교세를 내도록 초자연적으로 물질을 공급 받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마 17:27). 그는 또한 정부에 비종교적 세금을 내라고 모두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마 22:21).” 우리는 하나님과 황제 Caesar 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돈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돈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청구서들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도 내야

합니다. 랍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빵(밀가루)이 없이는 토라가 없다. 토라가 없이는 빵이 없다(피르케 아볼 Pirke Avot 3).”

기록 남기기

부흥과 풍요의 역사 가운데 모든 지출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왕하 22:7). 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불신도 많고 재정적 압박도 큼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올바른 기록을 남겨야만 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과정은 청렴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고후 8:20-21.)”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도덕성을 보이려고 합니다.

상처 받지 말라

유다가 예슈아를 배반한 이유 중 하나는 베다니의 마리아^{Miriam}가 예슈아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상처로 인해 그는 배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마 26:14). 여러분도 같은 덫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비교하지 말라

급여와 혜택을 비교하면 질투와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받지?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데...” 예슈아께서는 고용된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어떤 이들은 더 오래 일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지 못하자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슈아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마 20:13, 15)?” “난 이 정도 받을만해”라는 태도는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한 측면은 자신이 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눅 3:14).

열국의 부

성경에는 부요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열국의 부”가 저희에게 오리라는 예언들도 있습니다(사 60:5; 60:9; 60:11; 60:16; 61:6; 속 14:14). 하나님께서 왜 저희에게 열국의 부를 주고자 하십니까? 저희가 사치스럽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국의 부가 저희에게 임하는 것은 열국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저희의 동기는 열국의 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열국으로부터 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드리는 것에 대한 믿음, 받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믿음을 확장시켜야 합니다.